

## 100년의 거목으로

1956년 창간된 월간『考試界』가 2019년 6월호 로써 창간 6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63년 동안 월간『考試界』를 애독해 주셨던 수많은 독자들, 좋은 글을 보내 주신 교수님들과 집필자들과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 말씀을 전한다.

1950년대 후반의 어둡고 힘든 시기에 창간된 월간『考試界』가 그 동안 순탄한 길만 걸어온 것은 아니었다. 지난 60여년간 법조인선발을 책임져온 사법시험의 폐지, 종이책과 오프라인서점의 감소, 유튜브와 같은 영상플랫폼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상황 속에서도 63년을 한결같이 국가 우수인재 충원의 역할과 한 차원 더 높은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왔다는 사실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일이다. 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성원하고 응원하여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古稀를 맞은 법조계는 유례없이 암울한 현실이다. 헌법재판관은 '사법에 의한 입법'까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 헌법재판소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명·선출한 진보적 성향 헌법재판관의 숫자가 위헌정족수인 6명이 되어 민주적 정당성에 우려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는 동성애자 처벌법, 사형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양승태 前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건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10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판사들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으면서 前법원행정처 간부가 구속기소 있다. 전직

대법관들도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이 와중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동료판사들의 탄핵을 거론해 법관사회가 내용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수사권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문제로 혼돈에 빠져 있다. 국가의 권력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에 한정된다고 하지만 그 영향은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고 필요하다면 공수처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집권세력의 단호한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발표가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691명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78%로 집계되었다. 서울대가 80.9%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고려대(76.4%), 연세대(69%)가 이었다. 또 성균관대(68.8%), 서강대(65.6%), 이화여대(65.2%) 등 서울 소재 로스쿨들의 합격률도 높았다. 반면 지방에 위치한 원광대는 23.4%, 제주대와 동아대는 각각 28.0%, 31.6%란 저조한 합격률을 기록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2019년 입학자 중 93.4%(152명 중 142명)가 이른바 SKY 대학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SKY 대학 출신이 아닌 입학생 10명 중 7명은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의 특수목적 대학출신이거나 외국계 대학 졸업생이었다. 서울대는 지방대 졸업생은 단 1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통계에 의하면

## 정 상 훈

- 月刊『考試界』발행인
- 도서출판 고시계사 · 미디어북 대표
- 법무경영교육원 원장
- 한국잡지협회 교육원 원장
-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유라시아세계본부 지원의장



금년 로스쿨 신입생 중 70%는 23~28세이고, 35세 이상은 6.84%에 불과하다. 소위 명문대학 출신이 아니면 서울에 소재한 로스쿨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중·후반의 나이를 넘기면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될 기회조차 없다는 의미이다. 과연 “로스쿨 도입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원로 역사학자인 한영우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술원 석좌교수가 펴낸 <과거, 출세의 사다리>(지식산업사)에서 조선시대는 신분이동이 자유로운 역동적인 사회였다고 한다. 조선왕조가 500년 이상 장수한 비결은 지배엘리트인 관료직을 세습하지 않고, 능력을 존중하는 시험제도인 과거로 하층사회에서 인재를 충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교수는 노비를 제외한 평민들은 어느 벼슬길에도 제한이 없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탄력적인 사회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출범 2주년을 맞았다. 2주년을 즈음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조사한 ‘현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에 따르면 전반적인 국정평가는 분야별로 갈렸다. 공직자 인사와 경제정책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경

제정책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공직자 인사도 민심을 크게 배반하고 있다. 지난달 대졸이상 실업자 수가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하였다. 통계청에 의하면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실업상황도 역시 4.4%로 역대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웃나라인 일본은 금년 3월 대학생 취업률이 완전고용에 가까운 97.6%에 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일본경제신문)이 보도하였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낭독한 취임사처럼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다짐했던 것처럼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그 동안 저희 月刊『考試界』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애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00년을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한다.